

#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

## - 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한길연(서원대)

1. 서론
2. 여성의 억압된 현실과 아내의 남편 골탕 먹이기
  - 2.1. <현씨양옹쌍린기>
  - 2.2. <옥원재합기연> · <명주기봉>
3. 여성의 억압된 현실과 시댁식구들의 며느리 편들기
  - 3.1. <완월회맹언>
  - 3.2. <명주기봉>
4. 결론

### 1. 서론

여성과 일상의 친연성은 “일상사와 여성사는 ‘천생적으로’ 짝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sup>라는 지적처럼,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들은 실제로 비공식적이고, 사적이며, 권력과 조직의 영역 바깥에 놓여진 존재이기에 종래의 역사 서술에서는 일상 속에 묻혀져 버렸지만, 일상의 부각과 더불어 그녀들의 모습 또한 재발견되고 있다.<sup>2)</sup>

1) 도로테 비얼링, 『일상사와 양성관계사』, 『일상사란 무엇인가』(알프 뤼트게 외 저·이동기 외 역), 청년사, 2002, 237면. 물론 이 글에서 일상사는 단지 여성사뿐만 아니라 남성사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양성사 쪽으로 가야 함을 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성사와 일상사의 긴밀한 관련을 전제로 깔고 있다. 여성과 일상의 이러한 긴밀한 관련에 대해서는 크리스토퍼 래쉬, 『여성과 일상생활: 사랑, 결혼, 그리고 페미니즘』, 오정화 역, 문학과 지성사, 2004; 광삼근, 『일상의 여성학: 여성의 눈으로 세상읽기』, 박영사, 2005 등에서도 상론한 바 있다.

2) '일상'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일상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조선후기 소설 또한 그 주된 독자층이 여성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나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작품에서 일상의 모습 특히 여성의 일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그 중 장편거질의 대하소설의 경우에는 풍부한 지면 안에 일상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포착해 내면서 단편의 소설에 비해 여성의 삶을 보다 적실히 담아내고 있음이 밝혀졌다.<sup>3)</sup>

그런데 최근까지 대하소설에서의 일상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각각의 작품에서 여성의 현실을 얼마나 짙게 형상화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sup>4)</sup> 이를 통해 당대 여성들의 자살한 일상까지도 친근하게 엿볼 수 있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현실의 일상을 담아내면서도 여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소설적 재미를 더해주는 지점은 어디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대하소설에서의 ‘일상의 미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하기 힘든 또 다른 색다름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여성을 규방 속에 속박해 놓고서 살짝 늦추어 주어야 하는 모순의 타협점”에서 출현한 것이 규

소홀히 평가되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이에 대해서는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34면에서 이미 상론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일상을 평범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삶이라는 수준에서 이해하기로 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혁혁한 공적을 드러내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별다른 업적 없이 평범하게 살아감으로써 그간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그간의 여성들의 삶은 특히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은 주로 가정 안에서의 삶에 한정되어 있기에,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을 일상과 관련시켜 논의할 때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송성옥,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양민정, 『조선조 기봉류 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정병설, 「〈완월회명연〉 연구」, 태학사, 1998; 정병설, 「〈옥원제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이지하, 「〈옥원제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와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이지영(2005).
- 4) 선행연구 중에도 <완월회명연> 등의 대장편소설에 “여성억압적 제도에 안타까움의 표출”과 더불어 “여성적 願望의 표출”도 함께 들어 있다는 논의(정병설, 앞의 책, 228~234면)는 본고의 논지와 상통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논의를 발전시켜 이 두 가지 국면을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 5)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방소설이라는 지적처럼, '여성의 일상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살짝 늦추어 주어야 하는 틈새의 타협점'은 어디인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과연 소설 속의 '일상'과 현실의 '일상'이 동일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소설에서나 현실에서나 일상이란, 특히 여성과 관련한 일상 생활이란 가정 안에서 남편, 시부모, 기타의 시댁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틀어 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이러한 일상생활을 다루는 '일상 서사'<sup>6)</sup>는 현실에서 소재를 얻지만 현실과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틈새를 통해서 소설의 '일상'은 새로운 긴장을 창출해 낼 수 있고, 역으로 현실의 '일상'은 소설 속의 '일상'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당대의 일상적 현실과 더불어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공존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조선후기 대하소설 속에 존재하는 '일상 서사'의 미학이 아닐까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하소설에서의 일상에 대해 규명해 보기로 한다.<sup>7)</sup>

물론 본고에서 일상을 약간 벗어난 지점까지 아울러 다룬다고 해서 일상 생활 자체를 아예 벗어난 사건들까지도 포함해서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하소설에서는 여성이 男裝한 채 出征하여 많은 공을 세운다거나,<sup>8)</sup> 여성이 아예 가정을 떠나 자신만의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등<sup>9)</sup> 일상공간 자체를 아예 벗어난 파격적인 탈일상의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 戰場은 정치적인 공간으로 이미 사적인 영역을 벗어난 공적 영역이기에 여성의 일상적 공간과는 거리가 멀며, 여성만의 小國을 찾

1988, 117면.

- 6) 이혜경, 「일상 서사-가족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322면에서는 일상 서사를 개성 있는 인물들이 속한 가족에의 접근을 통해 작고 사소한 사건들을 담아내는 주변 서사의 문학적 형식이란 개념으로서 사용한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수용하여 한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자잘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서사 형식을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 7) 이는 마치 요즘 드라마나 만화 등에서도 일상을 충실히 반영하는 듯하면서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장면들이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8) 이러한 여성인물들은 대부분의 대하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하진양문록』의 하옥주와 『옥루몽』의 강남홍을 들 수 있다.
- 9) 이러한 여성인물로는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들 수 있다.(참고,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 영웅인물들에 관한 小考」,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아가는 것 또한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을 떠나는 것이기에 일상적 삶과는 거리가 멀다.<sup>10)</sup>

본고에서는 일상공간을 넘어서는 이러한 과격적인 탈일상의 서사들은 제외하고, 가정 안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현실의 일상을 짙진하게 재현하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난 지점들을 통해 대하소설에서의 일상의 형상화와 그것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삶과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현씨양옹쌍링기> 연작,<sup>11)</sup> <옥원재합기연>,<sup>12)</sup> <완월회맹연><sup>13)</sup>을 대상으로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 2. 여성의 억압된 현실과 아내의 남편 곶탕 먹이기

### 2.1. <현씨양옹쌍링기>

<현씨양옹쌍링기>에서는 너무나 호탕한 남성인물과 너무나 端重한 남성인물로 인해 여성인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짙진하게 형상화되어 있

- 
- 10) 일상성을 '일상생활' 혹은 '일상공간'과 관련시켜 연구한 논의로는 강수택의 「아그네스 헬러의 인간학적 일상생활론 연구」, 『현상과인식』 2,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4; 김왕배, 「일상생활세계론-시·공간과 실천의 합리화」, 『경제와사회』 43, 한국산업사회학회, 1999 등이 있다.
- 11) <현씨양옹쌍링기> 연작이 여성의 삶과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음은 이지하(1992); 송성옥(1992)에서 상론한 바 있다. <현씨양옹쌍링기> 연작에는 <현씨양옹쌍링기>, <명주기봉>, <명주옥연기합록> 세 편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여성의 삶과 의식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 <현씨양옹쌍링기>와 <명주기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씨양옹쌍링기>의 경우에는 10권 10책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影印本 『현씨양옹쌍링기』 1·2(2책), 국학자료보존회, 1979)을, <명주기봉>의 경우에는 24권 24책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影印本 『명주기봉』 上·下(2책), 문화재관리국장서각사무소, 1978)을 대상으로 한다.
- 12) <옥원재합기연>이 여성의 삶과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음은 정병설, 앞의 논문; 이지하(2001)에서 상론한 바 있다. 연구 자료로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옥원재합기연> 21권 21책(『필사본고전소설전집』 27~30(김기동 편), 아세아 문화사, 1980)을 대상으로 한다.
- 13) <완월회맹연>이 여성의 삶과 의식이 잘 반영하고 있음은 정병설, 앞의 책; 정창권, 앞의 논문에서 상론한 바 있다. 연구 자료로는 김진세 독해, 규장각 소장본 <완월회맹연> 180권 93책(전 12책), 서울대 출판부, 1987~1995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비록 독해본이지만 선행연구(정병설, 앞의 책, 24~32면)에서 소설연구의 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sup>14)</sup> 그 가운데 성격이 호탕한 현수문과 관련하여 윤혜빙이라는 여성인물이 겪는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외숙인 장시랑 집에 갔다가 우연히 베를 짜고 있는 윤혜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한 현수문은, 일시 欲情으로 그녀를 강제로 겁탈하게 된다. 盛壯한 현수문은 연소한 윤혜빙을 능숙하게 겁탈하는데, 이 때 “혜[윤혜빙] 낙담상혼(落膽喪魂)하여 일신(一身)을 안접(安接)지 못하게 썰고 신식(身色)이 여토(如土)하나 싱[현수문]은 절디미인의 옥보방신(玉寶芳身)을 꺾지우미 만종(萬種) 풍류(風流) 불가형언(不可形言)”<sup>15)</sup>인 형국에 이르게 된다. 정조를 빼앗긴 윤혜빙이 실성체읍하면서 강물에 투신하자 현수문이 악을 써서 살려낸다. 이후 현수문이 윤혜빙을 겁탈한 것이 부모에게 발각되고 또 윤혜빙이 추밀사 윤공의 외동딸임이 밝혀지면서 결국 윤혜빙은 현수문과 혼인하게 된다.

<현씨양옹쌍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반가 자체가 하층의 여성들을 일시 욕정으로 희롱한 후 이런 사실이 부모에게 발각된 뒤 첩실로 맞아들이는 사건은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옥난기연>의 장현성과 진천주, <소현성록>의 소운성과 소영, <명주옥연기합록>의 현희문과 자란 등에 관련된 사건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남주인공이 단순한 성희롱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여성인물들을 겁탈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일방적 횡포를 그려내고 있음을 이미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다.<sup>16)</sup> 이는 사료나 문헌설화 등을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조선후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꺾박받는 여성들의 삶의 한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sup>17)</sup> 이러한 일들은 당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들의 일상에 가깝다 할 수 있다.

14) 이에 대해서는 이지하(1992)에서 상론한 바 있다.

15) <현씨양옹쌍린기> 2권, 182~183면.

16) 이지하(1992), 11면; 송성옥,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167면; 이상택, 「<창난호연> 연작의 텍스트 교감학」,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232~236면.

17) 특히 <옥난기연>의 경우에는 혈기왕성한 장현성이 벽에 걸린 칼을 서릿발처럼 휘두르면서 열세 살의 연소한 벽앵을 성폭행하려 하자 벽앵이 그 칼을 빼앗아 自害하고 혼절하는데, 이때 인사불성인 벽앵의 몸을 장현성이 마음껏 농락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폭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이상택, 위의 논문, 234면에서 상론한 바 있다.)

그런데 혼인 뒤에는 여성들이 혼전 자신을 겁탈했던 남편에 대한 분한 마음을 억누른 채 함묵하면서 지내는 여타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남편을 세 차례나 걸쳐 골탕 먹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당대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현실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현수문에 대한 윤희빙의 설욕은 결혼식 날부터 시작된다. 결혼식 날 만취한 현수문을 보고 윤희빙은 그간 당한 치욕을 앙갚음하기 위해 “엮어흔 낫치 기왓장긋치 길고 프르며 삼단꺾튼 눈섭우희 큰 흑과 불근 스마귀 영 괴여시며 통방울꺾튼 두 눈의 (...) 쥬저 안즌 코히 지즈던 입으로 엄니 좌우의 가로 박혔고 (...) 등이 굽은 가운데 풍질이 성(盛)하여 몸과 스지(四肢)의 헌덕지 만창(滿昌)하여시니 그 거동이 츠마 흉령무서<sup>18)</sup>운 鬼形女를 칠 보로 단장시키고 홍삼채의를 입혀 신방에 들여보낸다. 현수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첫날밤을 치른다. 그런데 정신이 든 후 “얼굴의 분을 발나 시도록 부비여 어롱졌는디 코 아리 쯡기 터져 룡집이 입으로 흘러드러 더럽고 추하여 바로 보기 어려우”며, “넉 적은 사람은 질식(窒塞)홀<sup>19)</sup> 만한 흥모의 귀형녀가 자기와 동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다. 윤희빙이 혼전 현수문에게 당했던 치욕을 갚은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윤희빙은 이모부 박공의 집으로 몸을 피하는데 얼마 후 현수문은 수십 명의 노복들을 시켜 윤희빙이 타고 가는 가마를 기습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짐작하고 방책을 세운 윤희빙에 의해 현수문은 또 다시 골탕을 먹는다. 가마를 앞에 두고 현수문은 “요특(妖厲)흔 발부는 밧비 느와 주군(主君)의 명을 드르라.”<sup>20)</sup>라고 호통을 쳤는데, 공교롭게도 그 가마 안에는 칠십 먹은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엇지 날을 빅쥬(白晝)의 강탈(強奪)하여 오느뇨? 내 전일(前日) 면분(面分)도 업는디 무슴 요특(妖厲)흔 일을 하여 보여관디 그디도록 욱하느뇨?”<sup>21)</sup>라고 꾸짖으며 현수문을 낮 둘 곳 없게 만든다. 이는 현수문이 두 번째로 윤희빙에 의해 망

18) <현씨양옹쌍린기> 3권, 264~265면.

19) <현씨양옹쌍린기> 3권, 267면.

20) <현씨양옹쌍린기> 3권, 272면.

21) <현씨양옹쌍린기> 3권, 272~273면.

신을 당하는 대목이다.

두 번씩이나 윤혜빙에게 꿀탕 먹은 현수문은 분기탱천하여 박공에게 자신의 아내인 윤혜빙을 보내지 않으면 황제에게 건의하여 문죄하겠다고 협박한다. 이에 윤혜빙이 스스로 교자를 타고 시택에 이르자 현수문은 의기양양해 하면서 윤혜빙을 엄책하려 하지만, 여기서도 윤혜빙은 남편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하게 된다. 두 차례나 속은 일이 분한 현수문이 윤혜빙이 타고 온 교자를 보고는 “윤가 출녀(劓女)는 스스로 죄를 아느냐? 니 전일 년소풍정(年少風情)으로 그더를 일시(一時) 유정(有情)하니 (….) 감히 주군(主君)을 업슈이 너져 전후(前後)의 두 번 속인 죄(罪) (….) 엇지 용서허리오?”<sup>22)</sup>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런데 교자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윤소저가 아니라 “집 혼 므슬 동히고 팔과 녹신을 민드라 치색(彩色)으로 못고 비단옷술 낚혀”<sup>23)</sup> 놓은 草人이 있을 따름이었다. 세 번씩이나 윤소저에게 툭툭히 망신당한 현수문은 어쩔 바를 몰라 낮을 붉히고, 현수문이 윤혜빙을 한번 혼내는 것을 구경하러 나온 집안식구와 시녀들은 모두 배를 쥐고 웃게 된다.

이처럼 <현씨양옹쌍린기>의 윤혜빙은 함묵하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분한을 표출하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과연 윤혜빙의 이런 행동이 당대 사대부가 여성에게 가능한 일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혼인 첫날밤에 신부가 신랑과 동침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로 대신한다는 것은 당대 양반가의 예법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또 이러한 ‘신부 바뀌치기’는 대부분의 소설에서 선인형 여성인물이 당자형 악인인물을 꿀탕 먹일 때 주로 쓰는 수법이다. 일례를 들면 <임화정연>의 당자형 인물인 진상문이 이미 임규와 약혼한 여주인공 정연양의 가마를 겁탈하여 혼인을 감행하려 할 때, 정연양은 물이나 길는 醜女인 ‘봉귀형’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진상문과 동침케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한편 진상문을 꿀탕 먹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이

22) <현씨양옹쌍린기> 5권, 516면.

23) <현씨양옹쌍린기> 5권, 518면.

런 일을 신부가 신랑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冠婚喪祭 그 중에서도 人倫之大事인 혼례를 상당히 중시했던 조선시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실상 거의 개연성이 없다.

게다가 갓 결혼한 신부가 이렇게 남편을 골탕 먹인 뒤 見舅姑之禮를 행하기도 전에 이모집으로 피신해서 시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더더욱 일상적인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새색시인 그녀가 오랜만에 시댁으로 돌아오는 날, 술한 친척들이 자신을 보러 오는 그 날, 자신을 대신하여 초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남편을 시댁식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킨다는 것은 당대 현실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일이다. 이러한 양상은 소설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여성이 호탕한 남성에게 의해 꺾박받는 현실과 더불어 여성이 남성을 골탕 먹이는 탈일상적 국면을 통해 새로운 긴장과 재미를 창출하고 있다. 소설 속의 이러한 일상 서사는 당대 여성독자들에게 현실의 양상을 꺾진하게 보여주면서도 현실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대리만족의 기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기실 여성이 男裝한 채 出征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는 등의 파격적인 탈일상의 사건들도 당대 여성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의 기제가 되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일상생활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에 당대의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현실감 없이 느껴졌을 수 있다. 남편과 티격태격하는 사소한 부부싸움의 국면에서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일상과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난 지점들을 통해 당대 독자들에게 실현가능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희화화되어 나타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소설 속에서의 또 다른 일상을 통해 당대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했을 수 있다.

## 2.2. <옥원재합기연> · <명주기봉>

<현씨양옹쌍린기>에서는 여성이 호탕한 남 주인공을 골탕 먹이는 장치

가 등장하고 있다면, <옥원재합기연>·<명주기봉> 등에서는 단중한 남 주인공을 곤혹스럽게 하는 장치가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옥원재합기연> 등에서는 翁婿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부부 갈등이 꾀진하게 드러난다. 조선후기 壻留婦家婚에서 親迎禮로 바뀌면서 장인과 사위의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24)</sup> 이러한 결혼 관습에 따라 여자는 극도의 고통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여자쪽 부모와 남자쪽 부모가 동등한 입장에 있었으나 친영례로 바뀐 이후에는 여성의 시부모에 대한 효만이 강조되고 남성의 빙부모에 대한 효는 현격히 감소된다.<sup>25)</sup>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와 더불어 兩家가 서로 당파가 다르게 될 경우에 여자는 시댁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위치로 말미암아 친가에 대한 原罪의식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자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부친이 계속해서 사위와 대립하면서 실책을 드러내기에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불효가 되는 형국에 이르게 된다. 여성들은 이로 인해 토혈을 하거나 자결을 감행할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sup>26)</sup> 이는 당대 가부장제 하에서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여성의 고통스런 현실을 잘 반영한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는 잠자리에서 여성인물들이 性的 自決權<sup>27)</sup>을 행사하면서 남성인물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옥원재합기연>에서 남주인공 소세경이 장인을 박대하면서도 아내 이현영과의 잠자리를 감행하려 하자, 이현영은 자신의 부친을 장인으로

24)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68.

25) “妻家를 내 집으로 삼아 처의 아버지를 아버라 부르고, 처의 어머니를 어미라고 부르며, 평소에 부모의 일로 여기니”(『成宗實錄』 성종 21년(1490) 6월 27일 條)라는 구절과 조선후기 “사위는 곧 外人”(『英祖實錄』 영조 20년(1744) 10월 25일 條)이라는 구절의 대비를 통해 조선 전후간에 翁서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다.

26) 이에 대해서는 줄고,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翁서대립담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7~291면에서 상론한 바 있다.

27)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性的 主體性’ 문제」(『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260면)에서는 “性的 自決權이란 인간이 자신의性に 대해 意思決定權을 갖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性的 접촉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동침하려는 남편에게 저항을 하게 된다. 먼저 신혼 초의 국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현영은 “그[남편의] 의상(衣裳)이 닳는 곳에 사갈(蛇蝎)이 근친(近親)하는 듯하고 낭쉬(兩手) 연(連)하는 바의 교퇴(狡兔) 호랑을 만난 듯”<sup>28)</sup> 남편과의 잠자리를 강하게 거부한다. 이에 소세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동침하기를 간청하게 된다.

“니 실노 나모하고 담지기를 못 이기여 병드디 아니호되 군(君)의 이 경식(景色)의 심쇄(心火) 되고 내 벱야 성장(盛壯)으로 양기(陽氣) 튕성(充盛)커늘 그더로 말의아마 울결(鬱結)하니 반드시 음양(陰陽)이 튕환(衝患)하여 명기(明氣)를 상히와 병나면 이는 실노 편작(扁鵲)도 못 곳치리라 누웃부디 아니라?”(<옥원재합기연> 6권, 27면)

자신이 장성한 남자로 이성지친을 맺지 못해鬱結하니 만약 계속 잠자리를 거부하여 병이 나면 名醫도 이를 고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잠자리를 갖고 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영은 자기 부친을 멸시하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쉽게 들어주지 않는다.

이후에도 이들은 자식을 낳기도 하는 등 부부간의 동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현영은 남편을 계속해서 거부한다. 이에 소세경은 자신이 아내를 둔 자로 홀로 지내서 병이 났으니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위는 차마 부친에게도 알리지 못할 일이라고 하소연하면서 동침을 청하는 일이 계속된다.<sup>29)</sup> 심지어 이미 웅서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남편이 수년간 집을 떠나 조정에서 벼슬하고 外職까지 하고 돌아온 상황에서도 이현영은 “설상가빙(雪上加氷)”<sup>30)</sup>한 태도로 수습하면서 “격년(隔年) 스상(思想)호던 정의(情意)”<sup>31)</sup>를 펴려는 남편에게 잠자리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28) <옥원재합기연> 5권, 507면.

29) “내 대당뷔(大丈夫) 되어 실가(室家)를 그춘 자(者)로 독처(獨處)하여 병이 나도록 호고 또 안해를 덕희어 정남(貞男)이 되어 죽기의 니르면 용넬(庸劣)호고 어리미[어리석음] (...) 인스불성(人事不省) 숙믹불변(菽麥不辨)이니 실노 창(窓) 맞기 들닐 거시 아니라. 어는 늦츠로 부주간(父子間)인들 알외리오?”(<옥원재합기연> 6권, 95면)

30) <옥원재합기연> 17권, 171면.

31) <옥원재합기연> 17권, 171면.

“것치 유순(柔順)히엿거늘 세월(歲月)이 오라매 인식(人事) 느릿느가 히엿더니 조금도 다름이 업스니 세간의 녀지(女子) 낭인(良人)[남편]이 둥(重)흔 줄 모르고 하늘이 높고 싸히 나즈 때 운행(運行) 오시의 그 바들 뿐인 줄 모르니 언제 그치리오. 스년(四年)을 아니보니 도로혀 쉬훤터니 아마 화증(火症) 나 못 견디리르다. (...) 격년(隔年) 니회(離懷)도 업스니 텃하(天下)의 혼흔 거시 녀지(女子)로디 내 므스 일 군 뜻이 없노뇨? 원앙(鴛鴦)의 결원 몸의 스이 거시 업고 년지(連枝)의 미친 거시 군가지 업스미라.”(<옥원재합기연> 17권, 171~172면)

소세경은 이현영이 유순한 태도를 보이기에 이전과 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에게 차갑게 구는 것을 보니 아마 그 동안 자신이 없어 시원해 하다가 다시 보니 화증이 나서 그러느냐고 하면서 천하에 혼한 것이 여자인데 아내만을 오로지 사랑하여 딴 마음을 두지 않는 자신을 한탄한다. 이처럼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소세경이 아내에 대해 “딱스랑의 외즐기미라”<sup>32)</sup>라고 자탄할 정도로 아내에 대한 애정을 풀길 없어 고심하는 남편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sup>33)</sup>

한편 <명주기봉>에서도 여주인공 화옥수가 남편 현홍린과의 잠자리를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써 단정한 군자인 현홍린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명주기봉>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부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현홍린과 화옥수의 갈등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홍린은 소인형 장인인 화정운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중 장인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不義之事를 목격하고는 장인을 斬刑에 처하기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이에 화옥수는 비록 자신의 부친이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인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남편을 不共戴天之怨讐로 규정하고는 한 방에 같이 머물 수 없다 하면서

32) <옥원재합기연> 21권, 414면.

33) 물론 이 장면에서는 신혼 초반쯤 심각한 갈등양상이 보이지는 않는다. 소세경은 화가 나서 向壁하여 누웠다가 태몽을 꾸고는 다시 이현영과 잠자리를 가져 이후 쌍둥이를 낳게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또한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함으로써 이런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소를 달리하며 수개월 동안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한다. 오랜만에 만난 현홍린이 그녀의 소매를 잡아 “년망(連忙)히 써치미 치슈(彩袖) 향매(香袂) 두 조각의 나”<sup>34)</sup>게 만들기도 하고, 현홍린이 억지로 동침하려 하자 “벽상(壁上)의 몸을 브더여 천방백계(千方百計)로 파”<sup>35)</sup>하기도 한다. 이에 현홍린도 어쩔 수 없이 화옥수와 몸싸움을 하게 되는데, 문득 자신의 이런 행동이 “촌부목동(村夫牧童)도 횡(行)치 아니홀 비오 취광(醉狂)의 거동”<sup>36)</sup>임을 깨닫고 물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단정한 인물이기에 여타의 여자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현홍린은 늘 “청년(靑年) 장기(壯氣)로써 쓰슬 품고 울” (鬱鬱)<sup>37)</sup>함을 어찌지 못함을 탄식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당대 부부간의 잠자리 갈등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나,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 <옥원재합기연>의 소세경과 <명주기봉>의 현홍린은 당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로 이러한 잠자리 갈등이 그리 개연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일부다처제의 현실 속에서, 또 남자의 외도가 용인되는 현실에서 남자가 아내 한 명만을 바라며 동정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소세경은 4년 동안 이나 부인과 떨어져 살면서도 시첩 한 명도 근처에 얼씬거리게 하지 않는데, 이 사실을 소세경의 시종이 이현영의 유모 설화에게 얘기하자 설화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소세경의 모습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다.<sup>38)</sup> <명주기봉>의 현홍린도 남도를 順治하고 돌아오는 중 술한 관자들의 간곡한 유혹에도 전혀 미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극도로 단정한 남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물 설정으로 인해 이들은 오로지 아내만을 생각하면서 장성한 남성임에도 이성간의 회포를 풀 수 없어 고심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흡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쌍성봉효록>, <유씨삼대록>, <유효공선행록> 등에서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 앞에서 기생을 끼고 희롱함으로

34) <명주기봉> 22권, 274면.

35) <명주기봉> 22권, 275면.

36) <명주기봉> 22권, 275면.

37) <명주기봉> 22권, 275면.

38) 이에 대해서는 정병설, 앞의 논문, 21면에서 논한 바 있다.

써 아내의 기를 꺾는 내용이 나온다. “기생희롱이라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기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sup>39)</sup>라는 선행논의에서 볼 수 있듯, 이는 남성우위의 당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sup>40)</sup> 그런데 <옥원재합기연>·<명주기봉> 등에서는 극도로 단정한 남주인공이 등장함으로써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아내만을 바라고 동침을 간청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단정한 남주인공뿐만 아니라 매우 峭強한 여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 또한 현실적으로 그리 개연성이 있는 인물은 아니다.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은 남편과의 잠자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한편, 자신의 부친이 위독하신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알고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아버지 봉양을 그만두고 우는 자식마저 방치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명주기봉>의 화옥수 또한 자신의 부친을 극형에 처하기를 상소하는 남편과 한 방에서 지낼 수 없다 하면서 拔劍하여 자결을 시도하는가 하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부모 공양을 폐하기도 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 현희몽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채 냉대하는 독한 모습을 보인다. 화옥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이는 “당시의 실상에 비추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니”<sup>41)</sup>라는 지적대로, 이들 여성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녀 주인공의 인물설정으로 인해 여주인공들은 남주인공들에게 잠자리를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여성독자들은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남편과의 잠자리라는 가장 사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국면에서 일상을 벗어난 측면의 형상화를 통해 새로운 긴장과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39) 송성욱(1997), 67면.

40) 아내의 기를 꺾기 위해 기생을 동원하는 것 이외에도 남주인공은 일부러 병이 나기도 한다. 그러면 여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곁에서 남편을 간호하면서 그간의 갈등을 풀게 된다. 이 또한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남편을 극진히 떠받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남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아내들을 자기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1) 송성욱(1992), 393면.

### 3. 여성의 억압된 현실과 시댁식구들의 머느리 편들기

#### 3.1. <완월회맹언>

<완월회맹언>은 기존연구에서 상론한 바 있듯, 여성의 삶과 애환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家中事의 세밀한 서술에서부터 여성억압적 제도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출에 이르기까지 여성적 체취가 짙게 묻어나고 있다.<sup>42)</sup> 그 중에서도 여성억압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남주인공이 빙부모가 자기 집안을 모해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아내에게 수차례의 자결을 강요한다거나, 계모의 혼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계모에 의해 누명 쓴 아내를 黜去하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여주인공이 겪는 고통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가부장제 체제 하에서 수직적 질서가 강조되는 가운데 여성이 하나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악인형 여성인물인 소교완에 대해서도 비록 그녀가 前妻所生인 정인성을 미워하여 악행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만일 평범한 남편을 만났으면 그 빼어난 미색과 재주로 남편의 온갖 총애를 받으면서 잘 살았을 터인데 ‘불행히’도 정잡과 같은 진명군자를 만나 평생 부부 사이가 소원하니 그 복덕이 완전치 못함이 안타깝다고 서술자는 말하고 있다.<sup>43)</sup> 소교완 스스로도 “세간(世間)의 녀지(女子) 되오미 진실노 괴롭고 어려오믄”<sup>44)</sup> 토로한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王侯將相이 되었을 자신인데, 불행히도 여자로 태어나 시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을 暴惡刹女로만 대하는 남편에게 제압당하

42) 정병설, 앞의 책 ; 정창권, 앞의 논문.

43) “만일 휴휴(悠然)한 장부와 호색(好色)한 준걸(俊傑)노 하여금 소부인을 짝지오미 될던디 서융(西戎)의 작난(作亂)이 국도(國都)을 탕멸(蕩滅)하는 바의 니르러도 탈 준마(駿馬)를 츠마 도로려디 못허리니 (...) 왕모(王母)의 선치미질(鮮彩美質)이라도 소부인을 디허미는 일 두(一頭)을 스양홀 바로 빅항천시(百行千事) 진무쌍(眞無雙)호고 절세상(絕世上)하여 과연 속인(俗人)으로 비치 못홀 거시어늘 불형이 정청계[정잡] 갓튼 진명(眞明)의 군주(君子)를 만느며 또 전출(前出)을 불열(不悅)하여 그옥흔 가운데 간모흉계(奸謀凶計)를 헝허미 (...) 평성의 금슬(琴瑟)의 낙(樂)이 곡조(曲調)를 화(和)치 못허니 이는 소부인의 자작디얼(自作之孽) 뿐 아니라 그 명도(命途)의 복덕(福德)이 완전치 못흔 연피(緣故)니 엇지 허늘과 귀신의 식이미 아니리오.”(<완월회맹언> 32권, 3책 : 52면)

44) <완월회맹언> 68권, 5책 : 228면.

며 살아야 하는 삶을 한탄한다. 이는 당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던 가슴 아픈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완월회맹연>에서는 단지 여성으로 태어난 슬픔만이 묻어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인물들이 여성인물들을 박대하는 대목마다 매번 등장하여 회담으로써 남성인물들을 꾸짖거나 여성인물의 편을 드는 인물이 나온다. 바로 남주인공의 고모인 상부인<sup>45)</sup>이 이에 해당한다. 상부인은 남주인공의 叔父인 정염과 더불어 회담꾼이라 할 수 있는 능동적 보조인물로, 여주인공을 억압하는 남주인공을 돌려준다.<sup>46)</sup> 그러면 상부인이 여성을 박대하는 남주인공을 회담으로써 놀리는 대목의 한두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sup>47)</sup>

먼저 <완월회맹연>의 남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정인광과 관련해서 상부인이 등장하는 대목이다. 정인광은 병무모가 자신의 집안을 모해하고 질욕했다는 이유로 본처인 장성완을 내쫓은 뒤 병이 나게 된다. 이 때 그의 첩인 소채강 또한 본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이 남편을 수발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면서 남편 수발을 자제하게 된다. 그러자 화가 난 정인광은 소채강을 階下에 내려 죄를 다스린다. 마침 친정에 왔던 상부인은 소채강이 명문화족이며 超出한 자질로 첩이 된 것 자체도 원통할 터인데<sup>48)</sup> 그 남편이 사납고 고집 세서 억제를 당하게 된 것을 측은해 하면서, “더저 스 회[사위] 닐광 갖치 거만호고 궤집(詭執)호여 쏘을 괴롭게 흘진디 통한(痛恨)호여 스랑호른 업슬가 시브도다.”<sup>49)</sup>라고 말함으로써 정인광을 놀린다. 이

45) 본명은 정태요인데 상연의 처이기에 계속해서 상부인으로 불린다.  
 46) 상부인과 함께 또 다른 회담꾼으로 등장하는 정염의 경우에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기 힘들다. 한 예를 보면 정인광이 소채강을 첩으로 들이게 될 때 정염은 정인광의 본처인 장성완에게 남편을 위한 길복을 마련하라고 한다. 당대 여성이 婦德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투기하지 않고 길복까지 마련해야 하지만, 기실 남편이 새로 장가들 때 입을 예복을 아내로 하여금 짓게 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참으로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염은 오히려 당대 여성이 지켜야 할 규범을 강조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47) 장성완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상부인이 정인광의 편을 드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나, 이 한두 번의 경우를 빼놓고는 다 여성인물의 편을 든다.  
 48) 소채강의 부친인 소수는 정인광이 장성완과 약혼한 사실을 모른 채 정인광에게 청혼하게 된다. 이후에 정인광이 이미 장성완과 약혼한 사실을 알고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을 정인광의 첩으로 들이게 된다.  
 49) <완월회맹연> 55권, 4책 : 310면.

후에도 소채강이 아들을 낳자 상부인은 그 아기가 정인광을 닮은 것을 보고는 “흐 님광의 식험도 인인(人人)이 괴로이 녀이거늘 두 님광이 나서 쏘 뉘집 녀즈를 괴로이 홀고?”<sup>50)</sup>라고 말함으로써 그간 아내를 박대했던 정인광을 회롱한다.

이러한 상부인의 모습은 <완월회맹연>의 남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정인성과 관련된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인성은 계모에 대한 효만을 중시 하면서 자신의 아내 이자염이 계모로부터 온갖 구박을 받는 사실을 외면한다. 소교완이 며느리 이자염을 모함하여 陋室에 가두려 할 때도 정인성은 아내의 결백함을 알면서도 계모의 명을 좇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다. 출지에 모친과 생이별을 하게 된 정인성의 어린 아들 정몽창은 이때부터 매일 울음을 터뜨린다. 이에 상부인은 정인성에게 “뉘라셔 저드려 니현딜[이현영]을 죄루(罪累)의 두라 흐엿관디 제 브디 후정(後庭) 누실(陋室)의 움겨 이런 도치 아닌 경식(景色)이 잇게 하니 결지히지(結者解之)라 제 엿지 유으(乳兒)를 다리지 못흐여 품어 기르난 슈고를 면흐염죽 흐리잇고?”<sup>51)</sup>라고 말한다. 정인성의 祖母인 서태부인이 딸인 상부인에게 정인성이 하루도 근심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애보는 일을 어떻게 맡겠냐면서 쓸데없는 농담 말라 하자,<sup>52)</sup> 상부인은 “무죄(無罪)흐 현처(賢妻)를 공연이 누실(陋室)의 두는 불인(不仁)의 거시 모어시 어엿버 그만 괴로움도 더으지 아니리잇가?”<sup>53)</sup>라고 말함으로써 죄 없이 고통받는 아내를 외면하는 정인성에게 일격을 가하게 된다.

상부인은 이러한 장면들 이외에도 정인광, 정인성이 아내를 박대할 때마다 빈번하게 등장하며, 그 밖의 남성인물들이 여성인물들을 억압하거나 경시하는 대목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한다. 峻烈한 조세창과 혼인한 정명엄이 모친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도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葬日에서야 온 사실을 알고는 조세창이 여자의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함을 탐탁지 않게 말하거

50) <완월회맹연> 137권, 10책 : 30면.

51) <완월회맹연> 88권, 6책 : 265면.

52) “경 업슨 희희(戲譜) 듯기 실타. 성익[정인성] 본디 백우(百憂)를 시러 흐로 무우(無憂)흐를 엿지 못흐거늘 노피(老母) 엿지 마즈 저를 보치여 그 몸의 괴로오물 더으리요.”(<완월회맹연> 88권, 6책 : 268면)

53) <완월회맹연> 88권, 6책 : 268면.

나,出征했던 형이 돌아오는 날 정인경이 아내 주성염을 구하기 위해 떠났던 일에 대해 정염이 정인경은 그 동기를 헌옷같이 경시하고 처자는 一身 같이 중대한다고 놀리자 정염 또한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정인경이 부인을 귀히 여기는 것을 뒤 놀릴 것이 있냐고 대꾸하는 등, 상부인은 항상 여성의 편에 서서 남성인물들에게 회담으로써 응수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소설에서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억압하거나 박대하는 일에 대해 한두 마디 훈계를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나이 지긋한 부인의 경우에 이런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그러나 <완월회맹연>의 상부인처럼 남성인물이 여성인물을 억압하는 대목마다 반드시 등장하여 남성인물들에게 통쾌한 일격을 가하는 인물은 좀처럼 드물다. 상부인과 같은 회담꾼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매 사건마다 등장하여 남성인물들에게 일침을 가한다는 것은 이미 현실적인 인물이기보다는 소설적 장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부인처럼 자주 친절 출입을 하는 것이 당대에 그리 흔치 않은 일일 뿐더러,<sup>54)</sup> 여성인물들이 불행을 겪는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점 또한 그리 개연성이 높지 않은 일이다. 또 고모가 그 조카보다 조카며느리의 입장을 더 고려한다는 것도 현실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다.

이처럼 상부인은 당대 여성의 일상을 꺾진히 담아내고 있는 <완월회맹연>에서 그 일상을 살짝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완월회맹연>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을 형상화함에 있어서 단지 당대 여성들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그려내는 것 이외에도 일상에서의 작은 일탈을 통해 여성들의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는 출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인물의 편을 드는 인물로는 시고모인 상부인 외에 시아버지인 정삼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병 든 며느리인 이자염, 장성완 등에게 손수 약을 다려 가면서 극진히 구호하고, “이현부(賢婦)[이자염]의 덕행은 비

54) 이에 대해서는 정병설, 앞의 책, 233~234면에서 논한 바 있다. “(조선조) 후대로 올수록 여성의 친절 방문은 부정시되고 대신 시집에 충심으로 충성할 것이 요구된다.”(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88, 77면)라는 논의 또한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록 외람(猥濫)호오노 근어요순(近於堯舜)호오니 닌성[정인성]의 되오므로는 능히 안히를 맞지 못호”<sup>55)</sup>다고 토로할 정도로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常談이 있긴 하나, <완월회맹연>에서는 이것이 극도로 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일상적인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자신의 집안을 모해하기도 하고 온갖 질욕을 퍼붓기도 하는 사돈을 두고도 그 딸인 며느리에게 그렇듯 지극정성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상황 설정이다.<sup>56)</sup>

당대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 시댁에 들어가면 ‘외부인’으로 고립되나,<sup>57)</sup> 소설 속에서는 비록 남편으로부터는 냉대를 받더라도 시댁식구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성인물의 형상을 통해서 이상적인 시집살이에 대한 당대 여성들의 바람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명주기봉>

앞서 <명주기봉>의 화옥수와 현홍린의 갈등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억압과 아울러 잠자리에서의 여성의 항거를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명주기봉>에서는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을 곤혹스럽게 하는 장면 이외에도 장인의 연좌로 아내를 냉대하는 남편을 골탕 먹이는 또 다른 장치가 있어 주목된다.

현홍린과 화옥수가 냉담하게 지내던 중, 현홍린이 남월왕의 薨去를 조문

55) <완월회맹연> 83권, 6책 : 162면.

56) 이러한 시부모의 지극한 며느리 사랑은 <옥원재합기연>에서도 잘 나타난다. <옥원재합기연>에서 여주인공의 媿父인 소송은 며느리를 위해 손수 약을 다려 간호하는 것은 물론, 며느리의 병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마당 한 칸에 단을 쌓고 밤새도록 하늘에 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며느리가 시부모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모습은 흔히 나타나나 시부모가 며느리의 병이 낫도록 기도하는 모습은 거의 드물다.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이 매우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일상을 벗어난 국면에 놓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57) 조선시대 여성은 결혼을 하면 ‘出嫁外人’일 뿐만 아니라 ‘入家外人’으로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단절된 삶의 길고도 험한 시련이 거의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는 논의(김열규, 『家와 家門』,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5~18면)와 “갓 시집은 여성은 ‘이방인’으로서 기존의 가족 질서를 깨뜨릴 가능성을 안고 있기에 더욱 위험시되며, 남편 집안의 우환은 대개 갓 시집은 여성의 탓으로 돌려지고 심지어 과부가 되는 것도 여자 탓으로 간주되었다”는 논의(조혜정, 앞의 책, 77면)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하는 한편 남도를 順治하러 떠나게 된다. 이때에 화옥수가 병으로 위태로 운데도 한 번 들어가 보라는 부친의 명령도 거절한 채 현홍린은 떠난다. 이에 장시랑을 비록한 현부 제인들은 현홍린의 화옥수에 대한 냉담함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 거짓 관을 만들고 거짓 빈소를 차린 후 남도에서 돌아온 현홍린에게 화옥수가 죽었다고 속이는 장면이 나온다. 현홍린은 화옥수의 거짓 빈소에 이르러 식경이나 통곡하며 “두 스미 물 부은”<sup>58)</sup> 듯이 젖도록 슬퍼하고, 밤에도 화옥수의 빈소에서 자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는 동안 몰래 일어나 제문을 지어 올리는 등 그간의 냉담함을 반성하면서 화옥수에 대한 지극한 정을 표출한다. 현홍린을 속이면서 웃음을 간신히 참아오던 장시랑 등이 제문을 읽는 과정에서 차마 웃음을 참지 못 하여 박장대소함으로써 일은 들통난다. 이에 속은 것을 안 현홍린이 큰 도끼로 화옥수의 관을 산산이 부수자, 이들은 “얇가 죽도 아닌 화슈[화옥수]의 성제문을 지어 가지고 동혈(洞穴) 틈글이 되자 비더니 어느 사이 관을 허러 녁빅(靈魄)이 놀느시게 흐려 하느다?”<sup>59)</sup>라고 놀리기도 하고 “저만흔 정(情)을 가지고 뉘 금거(禁拒)하관디 거츠로 니던스러이 구던다?”<sup>60)</sup>라고 희롱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현홍린의 외숙인 장시랑 형제 및 오공을 비롯한 현부 제인들은 현홍린의 냉담함을 조롱하는 보조적 장치로 기능하는 인물들이다.<sup>61)</sup> 이들은 장인과의 불화로 인해 아내를 냉대하는 현홍린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화옥수가 자식을 낳는 장면에서도 또 다시 되풀이된다. 화옥수가 자기부친을 멸시하는 남편의 자식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여 임신했는데도 처신하기를 평소와 같이 하자 남편인 현홍린 또한 모르게 된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화옥수의 출산시에 현홍린은 國陵의 일로 祭官이 되어 떠나게 된다. 그러자 이번에도 현부 제인들이 현홍린을 속이면서 아버지가 소탈하고 무상하여 자기 자식인 줄 모르는 것을 그 모친이 한탄하여 남을 주려 하기에 데려온 아이라며 현홍린을 놀린다. 이에 현홍린이 세상에 그런

58) <명주기봉> 21권, 262면.

59) <명주기봉> 22권, 268면.

60) <명주기봉> 22권, 269면.

61) 장시중 형제를 비롯한 현부 제인들은 남주인공의 지나친 호색이나 지나친 엄중함을 조롱하는 ‘익살스런 양반군’에 해당하는 인물유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에서 다룬 바 있다.

모질고 박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도리어 반문하는 양상이 전개됨으로써 그 스스로가 회화화되는 양상이 펼쳐진다.<sup>62)</sup>

그런데 여기에서 현홍린을 놀리는 데 공모한 인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시량을 비롯한 이들은 현홍린의 형제숙질에 해당하는 인물들로서 비록 戲諧를 즐긴다 하더라도 자기 집안에 들어온 조카며느리(혹은 嫂氏)를 그렇듯 지극히 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더욱이 거짓 빈소를 차려가면서까지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꾸미는 것이 당대 엄격한 유교사회에서 가능한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

한편 <명주기봉>에서는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매우 유다르다는 데서 일상의 경계를 벗어나는 또 다른 징후를 보여준다. 화옥수가 현홍린의 상소사건 때문에 자결한 휴유증으로 병을 앓는 채 친자의 특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때에 그녀는 시부모의 주선 아래 추월각에 머물며, 오직 현홍린의 형인 현천린의 딸 숙혜소저만을 데리고 남편 현홍린이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한 채 칩거생활을 하게 된다. 화옥수가 남편 현홍린에 대한 잠자리는 물론 함께 있는 것조차 거절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바로 시어머니의 이러한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비록 며느리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당대 현실에서 시어머니가 아들보다도 며느리를 더 생각하는 가운데 며느리를 위해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친정 걱정애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부모 봉양까지 폐하는 며느리를 당대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 姑婦 간의 갈등이 일상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sup>63)</sup>

62) “시똥[장시중]이 웃고 니르더 “세상의 우은 남지(男子) 만흔가 시브더라. 이런 텃선(天仙)가 툰 아들을 느스히더 그 아버란 거시 쇼탈(疎脫)호고 무상(無常)호여 돈연(頓然)이 츠식인 줄 아지 못 호고 좃지 아니” 기 뫼(母) 원통히 너겨 출홀이 남의 낭즈(養子)를 쥘런다 하니 그 아뵈 된 재(者) 엇지 몹 뜰 거시 아니리오.” 총지[현홍린] 쇼왈(笑曰) “이논 숙부(叔父)의 거긔 말습인가 시브거니와 그런 사름이 ” 시면 진실노 모질고 박행(薄行)호 사름이니 화낭슈도곤 심흔지라 연죽 츠오(此兒)의 팔지(八字) 어진 으비를 두지 못호여 생양(生養)의 다 불인(不人)을 맞느미로쇼이다” 좌위(左右) 일장을 대쇼(大笑)호니 (...)”(〈명주기봉〉 24권, 338면).

63)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5, 187~209면.

비현실적인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화옥수의 시어머니 주부인은 <명주기봉>의 전편인 <현씨양옹 쌍린기>에서 그 부친 주어사와 남편 현경문의 용서갈등 때문에 고난을 겪은 인물로 설정됨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화옥수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여성들 간의 연대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고부가 모두 용서갈등을 겪는, 앞뒤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구도는 의도적인 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상들은 비록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 시대에서 온갖 고초를 겪지만, 소설 속에서나마 시대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자신을 박대하는 남편을 골탕 먹이는 장치를 통해 '현실의 억압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도록 하는 데 기여했으리라 생각한다. 즉 소설 속에서의 이러한 일상적 틈새들은 당대 여성독자들을 또 다른 일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sup>64)</sup>

#### 4. 결 론

“소설이란 우리 일상적 삶과 관련된 하찮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 그것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꿈을 갖게 하고 (...) 각자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한다.”<sup>65)</sup>라는 말처럼, 소설은 현실의 일상을 펴

64) 물론 시대식구들이 며느리를 편드는 양상 속에는 결국 며느리를 자기 집안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 즉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현실의 일상에서는 시대식구들이 자기의 아들(혹은 조카)보다도 며느리(혹은 조카며느리)를 더 편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국면들이 소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상화됨으로써,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일상의 생활 곳곳에서 자신의 남편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남편과 대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대식구들의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길들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대식구들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또 다른 해방감을 맛보았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남편에게 억압되어 있던 다수의 여성독자들에게 이러한 장면들은 매우 통쾌한 감정을 느끼게 했을 수 있다. “아,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즉 시대식구들의 며느리 편들기 속에는 가부장제를 공고히 하려는 구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다시 뒤집으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 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은 이러한 작품들을 읽는 다수의 여성독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꿈꾸게 했을 수 있다. 주인공과 노예의 변증법이 시대식구들과 며느리의 관계 속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다.

65) 김치수, 『삶의 허상과 소설의 진실』, 문학과 지성사, 2000, 2면.

진하게 반영하면서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지평을 그려 보일 때 의미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당대의 일상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여기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록 이러한 일상과 탈일상의 변주 양상이 모든 대하소설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이 진지한 형태로 표출되기보다는 희화화되어 나타나는 측면도 적진 않지만, 거기에는 가부장제 하에서 고통 받는 당대 여성들의 바람과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때로는 자신을 억압하는 남성을 여성 스스로, 때로는 시댁식구들과의 연대와 공모를 통해 골탕 먹이거나 곤혹스럽게 하는 것으로서 표출되고 있었다. 소설 속의 이러한 ‘일상 서사’를 통해 당대 여성들은 현실의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일상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등 한정된 작품을 중심으로 이러한 양상을 검토하였지만,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아내의 남편 골탕 먹이기, 시댁식구들의 떠느리 편들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양상까지도 포함해서 대하소설에서의 일상과 탈일상의 변주 양상에 대한 폭넓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K C I

참고문헌

- 곽삼근, 『일상의 여성학 : 여성의 눈으로 세상읽기』, 박영사, 2005.
-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출판부, 1968.
- 김치수, 『삶의 허상과 소설의 진실』, 문학과 지성사, 2000.
- 양민정, 『조선조 기봉류 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5.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알프 튀트게, 『일상사란 무엇인가』(이동기 외 譯), 청년사, 2002.
- 크리스토퍼 래쉬, 『여성과 일상생활 : 사랑, 결혼, 그리고 페미니즘』(오정화 譯), 문학과 지성사, 2004.
- 강수택, 「아그네스 헬리의 인간학적 일상생활론 연구」, 『현상과인식』 2, 한국인문사회과학원, 1994, 117~141면.
- 김왕배, 「일상생활세계론-시·공간과 실천의 합리화」, 『경제와사회』 43, 한국산업사회학회, 1999, 175~204면.
-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378~400면.
- \_\_\_\_\_,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이상택, 「<창난호연> 연작의 텍스트 교감학」, 『고전문학연구』 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211~247면.
-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여성의 '性的 主體性' 문제」,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257~278면.
-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와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33~56면.
- 이지하, 「<현씨양옹쌍링기>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 \_\_\_\_\_,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이혜경, 「일상 서사-가족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303~326면.
-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 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117면, 103~175면.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  
구소, 1998, 45~62면.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응서대립담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  
학회, 2003, 277~315면.

K C I

## Aesthetics of 'Common Narrative' on the River Novels

- Rope Dancing Between the Common and Uncommon

Han, Gil-yeon

The affinity of women and common life is well known. This thesis examines the aesthetics of 'common narrative' on the story of *Hyeonssiyangwoongssangninki*, *Okwonjaebapkiyeon*, and *Wanwolhyemaengyeon*.

'Common narrative' is shown in the grand part of wife's making play on husband and the family of husband's taking part with daughter-in-law. In these common narratives the hope and desire of women in agony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of the time place. It is presented in the form of making play on and embarrassing men, occasionally by women oneself and occasionally in the conspiracy with family of husband.

The tight rope dancing between common reality of the time and the desire of getting out of common life is the aesthetics of river novels of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Women of the time might dream another common life over the real common through these common narratives of the novels.

Keywords : common narrative, making play on husband, taking part with daughter-in-law, *Hyeonssiyangwoongssangninki*, *Okwonjaebapkiyeon*, *Wanwolhyemaengyeon*, river novels

접수일자 : 2006. 3. 20 심사기간 : 2006. 4. 7~2006. 4. 28 게재결정 : 2006. 5. 16
---

к с і

к с і